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말씀을 뇌 속에, 뱃속에 넣고 행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2. 인생을 사는 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 목적>을 이루려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제대로 못 한다. 그것은 무지의 사랑이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도 성장하고, ‘육신’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풍부하게 받아 성장했어야 했다. <성장하지 않고서 하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성 관계를 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다. 성장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혈통의 번창’도 하고, ‘신앙의 번창’도 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사랑함으로 ‘신앙의 번창’을 이루고, 그들이 신앙의 자녀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전도하여 번져 나갔을 것이다.
4.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와 일체 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극적인 사랑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 한다.

5.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의 불이 붙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선생>도 ‘하나님 사랑’에 불이 붙어서 3만 명씩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신부급 역사의 복음’이 번져 가게 됐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계속 밀려왔다. 성경의 말씀에 그 날이 되면 사망에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
6.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사랑의 접붙임, 정신적 접붙임’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난자와 정자가 일체 되듯이 ‘난자와 같은 자기 사랑의 씨, 생명의 씨’와 ‘정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 생명의 씨’가 일체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복음을 전하면 생명들이 온다.
7. 의학적으로 볼 때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전도가 안 되고 계속 생명 손실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정상이면, 수만 명씩 전도를 하게 되어 있다.
8.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가 일체 된 세계에서 극적인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본다.
9.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다. 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질 때>도 계속 말씀을 전했다.

10.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는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신앙이 잠들게 됐다.
11. 말라기 선지자 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고, 그 후에 세레 요한이 왔다. 세레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말씀과 성령의 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했다. 그런데 세레 요한도 긴가민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이 왔어도 못 맞았다.
12.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 뜻대로 살 수 없다.
13. 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만 아는 말씀을 갖고 와서 전하고 행한다. 그 말씀은 사명자만 알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봐야 된다.
14. <말씀>이 없으면, ‘힘’ 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아는 것의 힘’ 이 없다.
15. <말씀>을 배우고, 뜻을 깨달아야 된다.
16.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